



1967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 장면

1949년도 齒科醫師가 된 以來 半平生을 우리나라 齒科醫師들의 和睦과 團合을 위하여 獻身하신 意志의 齒科人 金海洙 先生님은 鄉土 大邱에서 不撓不出의 意志가 뿜어나는 重厚하고 仁慈한 덕망가로도 名聲이 높다.

1957년도에 陸軍 中領으로 예편하신 후 大邱赤十字病院을 起點으로 慶北에 심은 金海洙 先生님의 情熱과 寡黙의 鄉土愛 精神은 10여년에 걸친 齒科醫師會 會務經歷이 잘 표현해 준다.

意志의 齒科人 金海洙 先生님은 취미인 登山을 즐기시듯 가난에 둘러 싸인 無齒醫村 住民들을 하늘같이 博愛와 責任感으로 어루만지신다.

1967년도 釜山醫大에서 學位 取得, 68년도 現住所에서 開業하심과 동시 慶北齒醫會의 市 事業理事·總務理事·副會長 등을 역임, 주요 「포지션」을 두루 거치면서 熱誠과 勤勉으로 團體속에 「我」를 일깨웠고 慶北同窓會長과 大齒協會 監事를 역임하시면서 金海洙 先生님에 意志의 哲學은 完熟에 이르렀다.

분주한 시간을 쪼개 無齒醫村 무료진료에 沒頭하셨으며 無齒醫村 診療立志傳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形式에 그친 齒科醫師의 「몸」은 無齒醫村에 必要없다. 信念가득한 마음과 健全한 몸과 所定の 機資材가 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

健康을 위해 시작하셨다는 卓球, 이젠 「이에리사」 흥내를 넘만큼 進歩(?) 되셨단다.

지난해 부터 施行된 500人 以上 사업장 醫療保險과 79년부터 實施된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 醫療保險制度가 보다 기운차게 뻗어나가 모든 國民이 골고루 惠澤을 입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커다란 바람이시다.

全國 齒科醫師의 資質向上과 團合을 위해서 大齒協會의 보다 과감하고 能率의인 회무집행이 있어야겠다는 金海洙 先生님은 作故하신 先親 뒤를 이어 3代 齒科醫師를 배출하는 가정을 이루는게 가장 福된 所望이시란다.

「쓸쓸한 배기 속에서 삼라만상은 깨어나듯 김 해수 원장님의 인자하신 마음... 새봄을 맞아 내내 건강하시길 빌며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시어 제삼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註」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